

내 신용등급 올리는 요령

대출은 가급적 한 건으로... 연체는 소액이라도 금물

직장인 이모 씨는 20대 후반이던 몇 년 전 은행을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필요했던 이 씨는 자신의 신용에 이상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막상 조회해 보니 은행 대출이 어려운 6등급에 불과했다. 그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신용카드를 만들 당시의 신용등급은 5등급이었고 1년 만에 4등급으로 올라섰으나 자신도 모르게 단번에 두 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실수로 카드대금 12만7천 원을 연체한 게 화근이었다. 그것도 불과 9일간! 이 씨는 신용이 다시 4등급으로 복귀하기까지 꼬박 3년을 기다려야 했다.

국가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융 거래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국가 경제 현안의 하나로 불거진 요즘에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렵고 7등급 이하의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한다.

신용등급 따라 대출이자 차이 커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은 등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확 벌어지는 대출금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하인 10등급의 금리는 1등급의 5배나 된다. 금리 수준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제1금융권 이용 여부다. 1등급은 은행에서 연 6%대 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은행 거래가 어려운 6등급 이하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20~30%대의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

다.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1등급은 1년에 이자를 600여만 원만 내면 되지만 8~10등급이라면 3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물

문제는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올리는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려면 짧아야 몇 달이고 길게는 일 년도 더 걸린다. 3~4등급을 오르내리던 개인사업자 박모(47) 씨는 새 가게를 내려고 상환 능력을 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가 이자가 연체되면서 9등급까지 떨어졌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거쳐 연체 없는 신용거래를 5년간 유지한 다음에야 가까스로 4등급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연체만큼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것도 없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다. 3개월 이상 연체로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리고 3개월 이내 단기 연체라도 3년은 기다려야 한다. 대출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은 물론이고 통신요금, 공과금 등의 연체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인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체는 1건도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하게 안고 있다면 오래 연체된 것부터,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부채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개의 소액대출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것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은 평소에 점검해야

돈이 필요할 때 가급적 낮은 이자로 빌리려면 신용 상태를 미리 관리해 둬야 한다. 연말정산에 맞춰 자신의 신

미국과 유로존의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세계 경제가 들쭉거리고 있다. 신용등급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어떤 요인이 자신의 신용등급 등락을 좌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용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전에는 신용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본인의 조회 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대부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출 신청 후 심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대출 실행 조회는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등급별 신용관리 방법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나면 적절한 관리법도 숙지해 두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효과적인 신용 관리 방법'에 따르면 신용도가 매우 낮은 7~10등급은 대출금을 먼저 갚고 카드 사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규 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기 전에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등급은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수로 공과금 등의 소액 연체 기록을 남기는 일은 극력 피해야 하며 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역시 서민 금융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1~4등급은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 이체나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결제,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한 은행에 집중시키고 연체 없이 오래 거래하면 신용등급 상승은 물론이고 수수료 감면과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빈번하게 제안하는 카드 한도 증액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슬기로운 금융소비자의 자세는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승희 기자 qquiti@hanmail.net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은 대출받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기 때문이다. 최하 10등급의 금리는 최고 1등급의 5배도 넘는다. 사진 최재규 기자